2008. 6. 5.
해외경제연구소 동북아팀

쓰촨성 지진피해와 중국 경제에의 영향

1. 중국의 지진피해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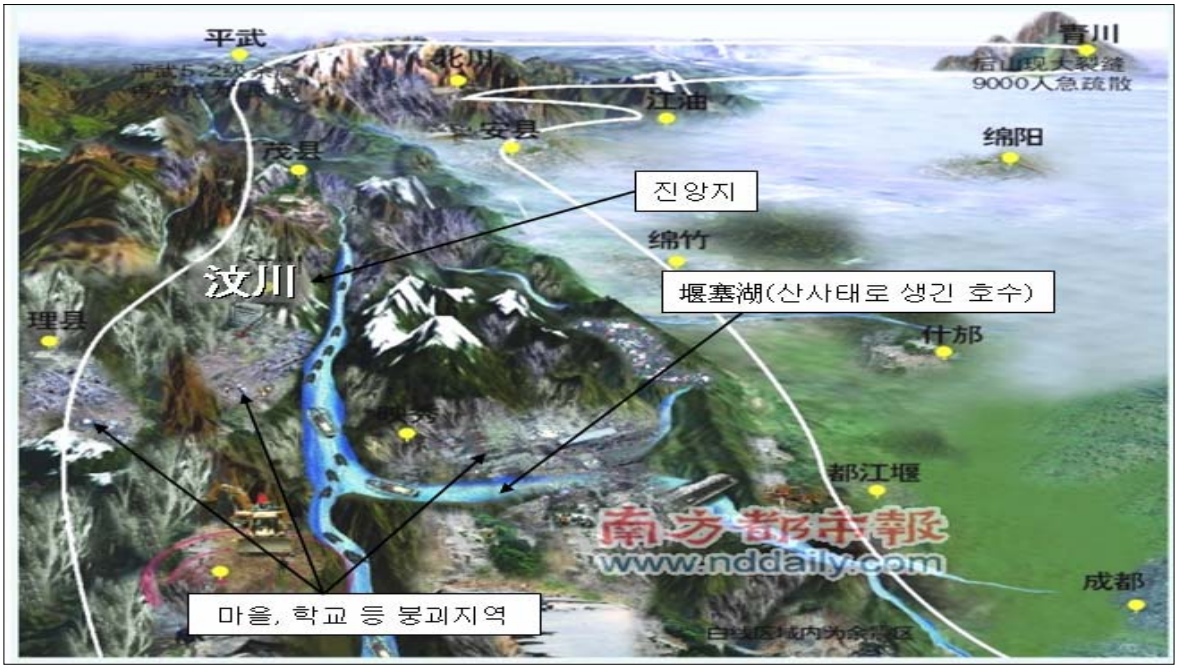
□ 사망자가 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여진에 따라 피해 확대

○ 쓰촨(四川)성 원촨(汶川)현에서 5월 12일 발생한 진도 7.9의 강진으로 사망 69,107명, 실종 18,230명, 이재민 4,569만명 발생(6월 2일 기준)

○ 쓰촨성에는 9,000여 차례가 넘는 여진이 최근까지 계속되고, 지진으로 생긴 자연호수의 붕괴 가능성, 산사태 등으로 피해는 늘어날 전망

- 320개의 댐 가운데 69개가 지진으로 붕괴 위험

<그림> 지진피해 지역



□ 산업부분에서는 100억 달러 수준의 피해 발생 추정

○ 정확한 피해규모가 산정되지 않았으나, 진앙지가 쓰촨성의 중심 도시인 청두(成都)와 93㎞ 거리에 있기 때문에 산업부분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

- 지진발생 직후 상해증시는 1.85% 하락한 3,560포인트를 기록하였으며, 은행간 콜금리도 0.16% 상승한 3.288%를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이 지진의 경제적 충격이 크지 않음을 반영

<표 1> 지진피해 규모 추산

구 분	피해규모
산업정보부	14,207개 기업의 피해 약 670억 위안(96억 달러)
창홍(쓰촨성의 대표 가전기업)	1.49억 위안 (0.2억 달러)
CNN보도	200억 달러 이상[1]

자료: 각종 언론자료 취합

□ 중국정부는 100억 달러를 투입하여 복구에 적극 나섬

○ 중국정부는 쓰촨성 재건을 위해 올해 700억 위안(약 100억 달러)을 투입하고 향후 2년간 비슷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하였으며, 해당지역 기업에 대해 세금면제 등 세제혜택도 제공

2. 쓰촨성의 중국 경제 비중

□ 쓰촨성의 경제적 비중은 크지 않으나, 농업의 비중은 높음

○ 쓰촨성이 중국 전체 GDP, 수출입, 외국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.3%, 0.7%, 2.7% 수준으로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음

○ 다만, 쓰촨은 식량과 육류의 주요 산지로서 전국 생산량의 각각 6.9%, 16.1%를 차지

<표 2> 중국 경제에서의 쓰촨성의 비중(2007년 기준)

구 분	단 위	쓰촨성	전 국	비중(%)
G D P	억 위안	10,503	246,619	4.3
수 출	억 달러	86.1	12,180	0.7
수 입	억 달러	57.7	9,558	0.6
고정자산투자	억 위안	5,842	137,239	4.3
외국인투자	억 달러	20.1	747.7	2.7
식량생산량	만 톤	3,448	50,150	6.9
육류생산량	만 톤	1,093	6,800	16.1

자료: 中國統計局의 각지역 통계 발표자료 참조 작성

1) 미국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약 440억 달러의 재산피해를 입음

□ 쓰촨성 청두는 서부대개발의 거점도시 역할 수행

○ 쓰촨성 청두는 중국정부가 2000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부대개발[2]의 핵심 거점도시로서 서부대개발에 따라 최근 급속히 성장

○ 중국정부는 청두와 충칭(重慶)을 서남지역 경제발전의 교두보로 삼아 서부대개발의 거점도시로 육성

- 베이징(北京)-텐진(天津), 광저우(廣州)-선전(深川)과 같은 독립적인 경제성장축으로 발전

<샨샤댐과 쓰촨지진의 연관성>

□ 샨샤(三峽)댐은 중국정부가 1993~2006년의 13년에 걸쳐 양쯔강에 건설한 댐으로 길이 2,309m, 높이 185m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규모의 댐임. 저수량은 393억톤으로 우리나라 소양강댐의 15배, 일본 전체 담수량과 맞먹는 규모이며 이번 지진의 진앙지에서 700㎞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

□ 환경단체들인 샨샤댐의 막대한 저수량으로 인한 지각에 대한 압력이 이번 지진의 원인이라고 지적

3. 중국 경제에의 영향

□ (성장률) 금년 경제성장에 0.2% 하락요인으로 작용

○ 쓰촨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, 특히 지진의 진앙지였던 지역의 경제비중은 훨씬 미미하여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

- 2/4분기 이후 피해 복구를 위한 고정자산투자 증가 등이 하반기 중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나 2분기의 생산 및 소비 둔화로 2008년 GDP는 0.2%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[3].

- 향후 재건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할 전망

2) 서부대개발은 '① 인프라 확충 ② 생태환경 보호와 개선 ③ 산업구조 조정 ④ 과학기술과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⑤ 개혁·개방의 확대'를 통해 동부연해지역과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2000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개발계획임

3) 地震可能拉低二季度GDP增速, 2008. 5, 中國証券報

□ (거시정책) 긴축정책 등 거시정책 변화 없을 전망

○ 지진 직후인 5월 20일 실시한 지준율 인상(16%→16.5%)에서 지진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을 위해 지준율을 기존의 16%로 유지하기로 하는 등 긴축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. 그러나, 중국정부는 지진으로 긴축정책 등 거시정책을 변화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

□ (물 가) 식료품 가격 상승, 복구자재 수요 증가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

○ 쓰촨은 중국의 대표적인 곡식 재배 지역이자 육류생산지역으로 생산감소, 도로 유실로 인한 운송문제로 인해 식료품 가격 인상 요인 발생. 또한, 피해복구 과정에서 자재수요 증가 및 복구자금 지원에 따른 통화량 증가 등으로 물가 상승 가능성 높음

□ (원자재 및 석유수요)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 가능성

○ 피해복구 과정에서 시멘트, 철강, 석유류 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중국 내 가격상승 뿐만 아니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 가능

- 중국정부는 6월 3일 '지진복구방안(國家汶川地震灾后重建規划工作方案)'을 통해 재건 지원을 위해 시멘트, 철강, 석탄, 천연가스 등의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, 석유류의 수출 중단 실시

□ (노동력 수급) 복구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로 노동집약적 기업들의 인력난 가중

○ 쓰촨성은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성으로서[4] 2007년 현재 2,002만명의 인력이 동부연해 지역으로 진출하는 등 중국 노동력의 주요 공급지역임

- 최근 노동계약법 시행에 따른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로 인해 임금상승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복구수요에 따라 쓰촨의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고, 오히려 타 지역의 노동력이 쓰촨으로 집중될 가능성도 있어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인력수급에 어려움 겪을 가능성 존재

4) 2006년 말 현재 8,169백만명의 인구 보유

□ (개발정책) 서부대개발이 가속화 될 전망

○ 지진을 계기로 파괴된 인프라의 전면적 확충, 동부연해지역과의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으로 서부대개발 정책이 가속화 될 가능성 있음

4. 시사점

□ 중국의 경제성장이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빠르게 전환

○ 중국정부는 최근 정책방향을 양적성장에서 환경오염, 경제의 효율성 제고, 자원소비 억제, 노동자의 권익 강화 등 질적성장으로 방향을 전환

○ 이번 지진으로 진앙지 대부분의 건물이 붕괴 되는 등 과거 양적성장에 치중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진을 계기로 양적성장에서 경제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질적성장으로 빠르게 전환 전망

□ 제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

○ 지진 피해를 통해 건물이나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제고될 전망

- 주택의 경우 과거에는 구매시 입지와 가격이 중요 고려 요소였으나 향후 내진설계 등 안정성도 중요 고려사항이 되어 안정성이 확보된 건물의 수요 증가 예상

- 또한, 정부의 건축 허가 등도 과거에 비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부분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

○ 최근 중국 정부는 리콜제도를 정식 도입하였는데, 향후 제품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로 리콜요구 및 안전기준 등이 대폭 강화될 전망

□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 감시 강화

○ 이번 지진에서는 부실공사로 인한 학교 건물 붕괴로 학생들의 희생이 많이 발생. 부실공사는 관료 및 지방정부의 부패와 연결되어 있어 이번 지진을 계기로 공공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등 시민활동의 태동 가능성

○ 시민들의 사회적 감시 활동 증가와 참여는 향후 중국사회 민주화의 초석이 될 수 있음

□ 사회적 약자 배려의식 제고, 재난 구호활동 활발해 질 전망

○ 지진발생 지역이 중국 내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빈민들의 희생이 많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국내외의 성금이 60억 위안(8,400만 달러)에 이르는 등*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 전개

* 한국기업들도 기부활동에 활발히 동참하여 삼성이 3,000만 위안, LG가 1,700만 위안 등을 기부. 중국정부는 구호성금에 대해 기업 세전 이익의 12% 까지 공제할 것으로 알려짐

○ 재난의 극복 과정을 통해 향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식이 제고되고, 재난에 대한 구호활동 등이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해 질 전망

책임조사역 박세근 (☎02-3779-6673)
E-mail : skparkse@koreaexim.go.kr